

가르침의 '일자일획' 마음에 새긴다

23일 불교방송 사경도반 10만 결사 입제... 도현 스님 지도법사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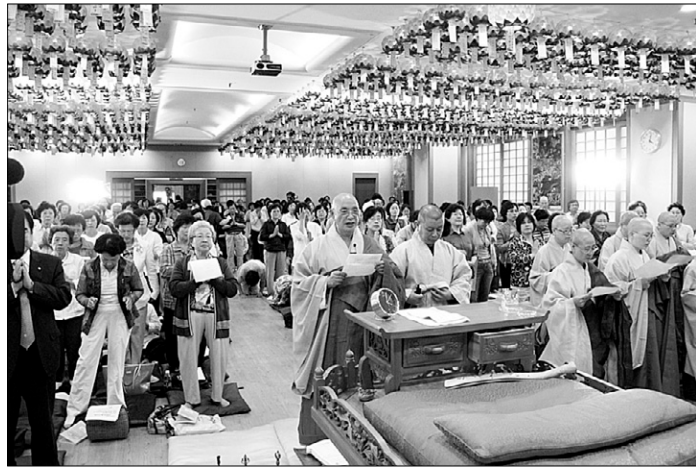
"내 이제 일념으로 서원하노니 미래세 다하도록 필사한 이 경전 파손되지 않고 설사 삼재(三災)로 삼천대 천 세계 부서진다 해도 이 사경 허공처럼 파괴되지 말지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도반들과 함께 마음에 새기는 '불교방송 사경도반 10만 결사 입제법회'가 9월 23일 서울 마포 불교방송 대법당에서 봉행됐다.

'사경도반 10만 결사'는 사경수행에 동참하는 불자들이 절차에 따라 사경수행을 해나가면서 도반 10만 명 모임을 발원한 수행캠페인이다.

300여 사부대중이 모인 가운데 열린 이번 법회에서는 前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원주 송광사 주지)이 법문을 하고, 지도법사인 도현 스님(정혜사 주지)이 사경 시연을 했다.

도영 스님은 법문에서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일념이 돼서 주인공격하는 자가 보살도를 실천하고 부처가 된다"며 "보살도를 실천하고 사경수행을 하기 위해 모인 불자들은



9월 23일 불교방송 대법당에서 '불교방송 사경도반 10만 결사 입제법회'가 열렸다.

보내 마음 뿌듯하다"고 말했다. 또 스님은 "사경은 부처님의 육성을 그대로 받아 적는 것이기에 공덕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발심은 이미 다 됐으니 신심을 가지고 열심히 수행 정진해 나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에 앞서 내원정사에 주석하고 있는 성주 스님이 10만 결사 법회를 축원하는 시조 축창(祝唱)을 했고,

'마을소리' 스님들이 찬불가를 들려줬다. 이어 사경도반 10만결사의 지도법사를 맡은 도현 스님이 위촉장을 전달 받았다.

1년간 지도법사로 활동하게 된 도현 스님은 인사말에서 "사경은 간단히 말해 부처님의 말씀인 경전을 베껴쓰는 것이지만 단순히 글자만 베끼는 것이 아니라, 매순간 일념

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는 우리 불교의 대표적 수행법"이라며 "각자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절차에 따라 사경수행을 해나가면서 서로에게 격려와 용기를 주며 스스로의 마음을 닦아 복을 짓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회에서는 사경수행을 해온 한 불자의 수행담을 들어보는 시간도 가졌다. 임홍순 불자님·천안시는 "만 2년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아침 금강경 사경을 해오면서 마음이 안정돼 성격이 차분해지고 매사 불안한 마음에 여유가 생겼으며 불교를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입제법회에 참석한 불자들이 도현 스님의 지도 아래 눈을 감고 반야심경을 사경하는 사경수행 시간도 진행됐다.

불교방송 사경법회는 매달 넷째 수요일 오후 2시에 여러 큰스님들을 모시고 사경 점검법회로 진행된 예정이다. (02)705-5301

이내나 기자 bohyung@buddhapia.com

불교·상담심리 만나 '비전 세우자'

지혜로운여성, 11월 24일까지 '행복가정 만들기' 강좌

사회를 구성하는 최소단위인 가정을 지키기 위해 사단법인 지혜로운여성(이사장 이은영)이 나섰다.

지혜로운여성은 9월 22일~11월 24일 매주 화요일 불교인재원 교육관에서 '부처님 마음으로 행복가정 만들기' 강좌를 실시한다.

이번 강좌는 불교 사상과 상담심리학을 연결해 가족 간의 이해와 갈등 해결을 위해 교육과 실습으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이다. 총 10회에 걸친 강좌는 부모, 부부사이의 문제 등을 짚어보고 참회와 서원의 과정을 통해 부처님 법으로 녹아들어 '내 가정의 비전'을 세우는 시간으로 마련된다.

22일 열린 첫 강좌는 '결혼과 부모됨의 신비'에 대해 이정호(사)이동청소년마음을키우는사람들 대표가 강사로 나섰다.



강의하는 (사)이동청소년마음을키우는사람들 이정호 대표

이정호 대표는 "심리학자 위니컷이 '충분히 좋은 엄마란 갖나가기 때는 환상적으로 잘 해주다가 점차 환멸을 느끼게 하는 엄마'라는 것을 예로 들어 '어머니와 아이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할 수 없을 경우 야기는 자기 자신과 세상을 신뢰할 수 없게 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심리적 토대 구축에 실패한다'며 아이들에게 사랑을 줄 시기가 있음을 강조했다.

한 수강생은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많은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힘들었다"며 "누군가의 조언이 필요했는데 이 강의를 듣고 결혼 생활에 자신감이 생겼다"고 소감을 밝혔다.

함주영 지혜로운여성(www.bwdi.or.kr) 사무처장은 "여성 불자들이 법당에서 제일 많이 기원하는 것은 가족일 것"이라며 "여성 불자의 간접함과 강화를 통한 전문지식으로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10월 6일에는 가족 모두가 연예인이자 불자인 김용림씨의 공개강좌 '우리 가족 살아야 기'가 진행될 예정이다. (02)722-2101 박선주 기자

신행계시판

● '청정도론' 특강법회=서울 제파와나선원은 10월 6일부터 12월 23일까지 매주 2회(오전반 10~12시, 오후반 8~10시) 제3기 불교수행 아카데미 '청정도론 특강법회'를 연다. △ 10월 6, 7일: 수행의 개요, 계율 수행 △ 13, 14일: 선정수행의 개요 △ 20, 21일: 선정수행의 실제(들숨날숨에 대한 행감, 자애수행, 무색계) △ 27, 28일: 지혜수행 개요, 사대수행(물질) 등을 주제로 일 문 스님 이 특강 한다. (02)595-5115

● 사마타 위빠사나 수행=명상선원 오솔길은 10월 9일 오후 5시부터 18일까지 총복 괴산 다보수련원에서 평등 스님과 함께 하는 사마타 위빠사나 수행을 실시한다. 교재는 전채성 역 <숫타니파타>이며 오후불식으로

진행. (033)333-8429

● 주말 위빠사나 수행=천안 호두마을은 10월 2~4일(능혜 스님 지도), 9~11일(능혜 스님), 23~25일(마가 스님), 10월 30일~11월 1일(능혜 스님) 주말 위빠사나 수행을 실시한다. 모집인원은 55명. (041)567-2841

● 3박4일 철야 참선정진=부산 해운정사는 11월 1일 오전 10시부터 4일 오전 11시까지 3박4일 철야 참선정진을 갖는다. 회향날은 200여 불자를 대상으로 재가오교 수계식도 봉행한다. 동참비 스님 무료, 재가자 5만원, 간혹선 수행도량인 해운정사에서 매일 음력 1일(10월 6일), 18일(10월 12일), 24일(10월 18일)에는 조실 진제 스님의 법문도 진행된다. (051)746-2256

삼랑성 역사문화축제 개막

10월 10~18일 삼랑성 전등사서 개최

삼랑성역사문화축제추진위원회와 강화전등사가 주관하는 '인천광역시 제9회 삼랑성 역사문화축제'가 10월 10~18일 삼랑성 전등사에서 개최된다.

이번 축제는 '천년의 기다림, 새로운 시작'이란 주제로, 소통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지금 소통(疏通)보다 소통(笑通)이 필요함을 알리기 위해 '歷史와 笑通(역사와 웃음으로 소통)'이란 부제와 함께 새롭게 마련됐다.

행사는 가을음악회, 다례재, 영산대재, 문화마당, 소리마당, 전시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해 관광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 줄 예정이다. 특히 전통 기법으로 법화경인출과 서책을 만드는 과정, 오래된 전지 등은 이번 행사에서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이다.

한편, 삼랑성 역사문화축제는 인천의 대표적 문화자원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지역 주민시민들의 자긍심과 일체감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된 축제이다. 이은영 기자

대원상 후보 추천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민병천)이 현대사회에 적합한 불교정신과 사상의 보급 및 전파에 앞장선 이들에게 시상하는 제7회 대원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시상부문은 대상에 출가 및 재가 부문 각 1명과 단체부문 1곳, 특별상은 숨은 재가자 및 단체 중에서 선정한다. 또 불교미디어콘텐츠상을 신설, 1인 또는 단체 한 곳을 선정해 시상한다.

대상(상금 1000만원), 불교미디어 콘텐츠상(상금 500~1000만원), 특별상(상금 300~500만원). 마감은 11월 11일. (02)719-1855 김성우 기자

봉은사 장학금 전달

중앙승가대 200여 명에



서울 봉은사(주지 명진)가 9월 24일 중앙승가대학교(총장 태원)에 재학하는 조계종 소속 스님 200여 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사진).

봉은사는 5월 14일 상반기 장학금으로 6870만원을 전달한 바 있다. 이번 장학금은 신도회를 통해 모금된 성금 6810만원으로 학인 스님 227명에게 각각 30만원씩 수여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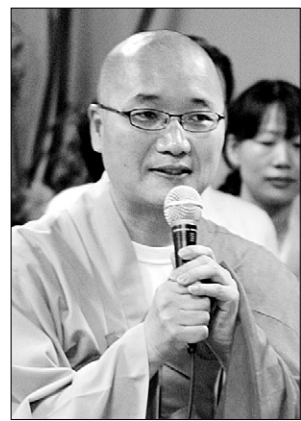
이날 전달식에는 봉은사 총무국장 진하 스님을 비롯해 황남수 봉은사 신도회회장 등 임원진이 참석했다.

한편, 봉은사는 2007년부터 중앙승가대학교 발전과 인재육성을 위해 매년 1억5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노덕현 기자

'방하착 수행' 강좌 성균관대 강타

법상 스님 10월 13일부터 특강



일산 덕양선원장 법상 스님(사진)의 '방하착(放下着) 수행' 강좌가 대학 강단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법상 스님은 10월 13일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퇴계인문관 31604호실에서 열리는 성균관대학 '동양사상 입문' 강좌에서 '방하착 수행'을 주제로 특강한다.

지난 해에도 성대에서 특강을 가진 바 있는 스님은 지난 3월과 9월 경기대학의 '문화의 이해' 강좌와 9월 18일 경원대학의 '동양철학' 강좌에서도 강연을 펼쳐 대학생들의 호응을 얻었다.

학생들이 가진 번뇌와 망상을 내려놓게 하는 방하착 수행은 각자가 스스로 존재함을 성찰하고 삶에 대해서도 한층 깊이 있게 바라보는 시각을 갖게 한다. 학생들은 스님의 강

의를 듣고 자신의 모습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환하게 생기를 발산하기도 하면서 선(禪)의 세계로 빠져들곤 한다는 후문이다.

법상 스님은 "이 강의가 물질의 풍요가 자칫 정신의 빈곤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이 시대를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한 작은 씨앗이 됐으면 한다"면서 "대학의 강의요청이 늘어나지만 가능한 한 학생들과 만나는 시간을 갖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덕양선원(cafe.daum.net/zeo)에서는 현재 신묘장구대다라니 27차 49일 정진이 진행 중이며 스님 집전 아래 매주 목요일 오전과 금요일 철야로 다라니 108독 정진을 한다. (031)907-7172 김성우 기자

팔공산 은해사 창건 1200돌 개산대제

보살계 · 만등불사 · 산사음악회

한국불교의 내일을 열어가는 은해사는 신라 헌덕왕 원년(서기 809년)에 해철국사(惠哲國師)께서 창건하신지 1200돌이 되었습니다. 기축년에 창건하여 1200돌을 맞는 기축년 기축일에 교계 대덕 큰스님을 모시고 개산대제 보살계와 만등불사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두루 동참하시어 선업과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53년 10월

개산대제 대법회 10월 11일 (일요일) 음 8. 23)

- 보살계 · 만등불사
 - 3층 전계대화상 설경큰스님 (덕송총림 수덕사 방장)
 - 교수이사리 해인큰스님 (약천사 회주)
 - 갈마이사리 지하큰스님 (전 종회의장)
- 산사음악회
 - 장윤정, 박현빈, 현숙, 조항조, 유지나, 원곡, 명창 박계향, 박명진, 주운숙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해사

법회 안내

- 10월 10일(토) 오후 3시
 - 개산조 해철국사와 역대조사 다례재 (부도전)
- 10월 11일(일)
 - 오전 9시 30분 - 헌공 (어산작법, 육법공양)
 - 11시 - 개산법요식
 - 오후 1시 - 보살계 수계식
 - 2시 30분 - 산사음악회
 - 6시 - 만등불사 점등식

□ 동참금 : 보살계 - 1인 2만원 / 만등불사 - 1인 1등 1만원

* 동대구역 지하도 → 하양 → 은해사, 남부정류장 → 경산 → 은해사 포함역 → 영천 → 은해사간 차량 운행합니다.

□ 경북 영천시 청통면 치일리 479번지
전화: 종무소 054)335-3318~9
원주실 054)335-5220

은해사 교구 각말사 www.eunhaesa.org